

K리그 '여름이적시장' D-6 코로나 여파 따라 탄력 운영

구단 '영입 의지'·선수 '계약 의지' 확인때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뒤늦게 개막한 2020시즌 K리그가 전체 여정의 4분의 1 정도를 소화했을 뿐인데 추가선수등록기간이 임박했다. 6일 후면 여름이적시장(6월 25일~7월 22일)이 열린다. 분위기는 이미 달아올랐다. 많은 선수들이 차기 행선지를 찾았다. 공식 발표가 나온 이들도 있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인 선수들도 여럿이다. 정상에 향해, 강등을 피하기 위해 달리는 K리그(1부)뿐 아니라 승격을 향한 K리그(2부) 클럽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이적시장 기간이다. 각 리그는 연간 최대 16주의 등록기간을 설정하는데, 연간 레이스인 K리그는 12주(1~3월)와 4주(6~7월)로 운영한다. 반면 해를 걸쳐 시즌을 치르는 유럽리그는 여름시장이 겨울시장보다 길며 7~8월 개장한다. 올해는 다르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초기에 리그를 조기에 종료했다.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등은 리그를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재개된 리그 대부분은 7월말 끝난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잔여경기(8강~결승)는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펼쳐진다. 통상 비슷한 시기에 열린 여름시장도 올해는 각국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각 회원국에 이적시장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이적시장 일정 변경'에 대해 구단들에 의견을 물었다. 이적시장이 개시되는 날짜 변경을 원하는 회원은 없었다. 단, 외국인선수를 해외에서 데려오려는 일부 구단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폐쇄한 국가의 선수들은 기간 내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문의했다. 연맹은 감비아 왕포워드 모두 바로(28)를 영입하려는 전북 현대를 포함한 몇몇 팀의 사례를 취합해 18일 이메일로 FIFA에 공식 질의를 했다.

FIFA는 구단의 '영입 의지'와 선수의 '계약 의지'가 뚜렷하고, 등록시기를 놓친 이유가 코로나19 여파라는 게 확실하면 선수를 돕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맹도 K리그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름이적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수원FC, 울산 수비수 정동호 임대 영입 유력



정동호

K리그2(2부) 수원FC가 수비형 미드필더 정재용(30)에 이어 K리그1(1부) 울산 현대 측면 수비수 정동호(30)를 영입한다. K리그 이적시장 소식에 밝은 관계자는 18일 "정동호가 임대 형태로 수원FC에 갈 것 같다.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고, 세부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정재용을 영입하며 지출이 컸던 수원FC가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2009년 요코하마 마리노스(일본)에서 프로에 데뷔한 정동호는 가이나라 돗토리(일본)~항저우 그린타운FC(중국·이상 임대)를 거쳐 2014시즌 울산에 입단했다. 지난 시즌까지 K리그 107경기에서 2골·10도움을 올렸다. 그러나 올 시즌은 1경기 출전에 그쳤다. 15년만의 정상 탈환을 목표로 큰 폭의 선수단 개편을 단행한 울산에 설 자리가 없었다. 울산이 국가대표 왼쪽 풀백 홍천(30·수원 삼성) 영입까지 추진함에 따라 K리그1 재승격을 노리는 수원FC와 접촉하게 됐다.

남정현 기자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최다득점 1골 남았지만 팀 첫승이 더 간절하다”



부산 공격수 이정협은 17일 대구와 홈경기를 비롯해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그러나 유쾌하지만은 않다. 부산의 시즌 첫 승이 계속 미뤄져서다. 스포츠동아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기록보다 팀이 먼저"라며 필승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최고참 책임감…내기록보다 팀이 좋아져야 젊은후배들 1부리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 부상 회복 빨라…인천 잡고 분위기 바꿀 것”

지난해 K리그2(2부)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올해 K리그1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의 젊은 선수들을 향해선 "워낙 좋은 재능을 가진 후배들이 많다. 상대 수비의 집중관제를 당하다보니 간혹 어려움을 겪는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원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최근 좋은 경기력과 기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몸상태가 나쁘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스포츠탈장으로 고생했다. 재활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시즌 개막시점까지도 몸을 만들어야 했다. 이정협은 "개막을 앞두고 언제쯤 팀에 도움이 될까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몸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나도 의아할 정도였다. 부상 부위는 보강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어 괜찮다. 시즌 초반부터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2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8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11위 부산(4무3패)과 12위 인천(2무5패)은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팀들이다. 이 경기에서 패하는 팀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상위권 맞대결 못지않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정협은 "대구전에서 발목을 살짝 다쳤지만 다가오는 인천전 출전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팀이 인천전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홍석 기자 gtyong@donga.com

나온다. 내가 골을 넣게 도와주는 동생들에게 고맙다. 후배들에게는 골을 내주더라도 끝까지 하다보면 우리가 더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K리그2(2부)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올해 K리그1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의 젊은 선수들을 향해선 "워낙 좋은 재능을 가진 후배들이 많다. 상대 수비의 집중관제를 당하다보니 간혹 어려움을 겪는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원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최근 좋은 경기력과 기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몸상태가 나쁘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스포츠탈장으로 고생했다. 재활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시즌 개막시점까지도 몸을 만들어야 했다. 이정협은 "개막을 앞두고 언제쯤 팀에 도움이 될까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몸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나도 의아할 정도였다. 부상 부위는 보강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어 괜찮다. 시즌 초반부터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2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8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11위 부산(4무3패)과 12위 인천(2무5패)은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팀들이다. 이 경기에서 패하는 팀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상위권 맞대결 못지않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정협은 "대구전에서 발목을 살짝 다쳤지만 다가오는 인천전 출전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팀이 인천전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시대’ 아마축구 한숨 뿐 유망주들 진학·프로 진출 암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K리그 역시 결코 반갑지 않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관중의 함성이 사라진 그라운드엔 전지훈련의 연습경기처럼 긴장감이 뚝 떨어졌다. 5월 8일 개막한 K리그1(1부)은 경기수가 종전 38경기에서 27경기로 줄어든 가운데 벌써 팀당 7경기씩 소화했지만, 유관중 전환 시기는 요원하기만 하다.

그래도 학원축구의 사정보다는 낫다. 아마추어축구는 지난달 21일 대한축구협회가 외부 연습경기를 허용할 때까지 모든 활동이 중지된 상태였다. 선수단 전체 훈련은 언급생심이고, 비대면 개인훈련 정도가 고작이었다.

일단 아마축구는 지난 주말 시작했다. 협회 주관의 전국리그 권역별 경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관한 K리그 주니어대회도 같은 시기에 개막했다. 그런데 여전히 정상적 패턴은 아니다.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많이 꺼려지고 있고, 실제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

여기서 진짜 고민이 생긴다.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스케줄을 거의 소화하지 못한 협회는 7월 이후로 주요 토너먼트대회를 미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백운기, 춘계연맹전, 대통령금배, 금강대기 등 굵직한 대회들이 줄지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시선이 곱지 않다. 과거에는 대회를 유지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전국 학교축구부의 방문을 뜨겁게 환영해줬으나 전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는 지금은 숙박과 식사 등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쓸 선수단이 오히려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됐다.

불편한 사실은 또 있다. 최근 수도권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지면서 일부 대회들이 7월 이후로 또 한번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러 대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게 돼 원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학교들은 더 울상이다.

사실 학교축구부들은 최대한 많은 대회에 출전하려고 한다. 상급학교 진학, 프로·실업무대 진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치열하게 진행되고 많은 선수들을 챙겨볼 수 있는 전국 대회는 내일의 보석을 발굴하려는 K리그 및 대학 스카우트 담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참가대회 축소로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줄어들고, 실적 역시 초라해졌으니 학생과 부모, 지도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프로 진출은 둘째로 치고, 상급학교 진학도 5월 무렵 대개 마무리됐다. 한 대학 지도자는 "올해 성과는 물 건너갔고, 전년 실적이 프로 스카우트의 기준에 반영된다는 흥흥한 소문이 있어 선수들이 흔들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저래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가는 코로나19다.

oshike3@donga.com

‘3G 연속골’ 펠리페, 펄펄 나는 이유

“1부리그 수비플레이 적응…동료 덕분에 골”



펠리페

광주FC는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17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치른 '하나원큐 K리그1 2020' 7라운드 홈경기에서도 2-1로 이겨 3연승이다. 개막 4경기에서 1무3패에 그쳤지만, 승점 10(3승 1무3패)으로 어느새 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스트라이커 펠리페(28·브라질)의 활약에 따라 광주 선수들의 운명이 달라졌다. 3연승을 쟁긴 경기들에서 모두 골을 넣었다. 펠리페는 지난해 K리그2(2부)에서 19골로 득점왕에 올랐다. 과거 K리그2 승격팀 스트라이커들과 마찬가지로 'K리그1(1부)에서 통할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붙었다. 그 또한 팀이 K리그1로 승격하면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했다. 적응이 쉽지 않았다. 4라운드까지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7일 수원 삼성과 원정경기(1-0 승) 후반 45분 극적인 결승골로 크게 자신감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 시즌 K리그2에서처럼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다. 펠리페의 골은 광주의 승리로 직결되고 있다.

펠리페는 "K리그2와 K리그1은 수비방식이 다르다. K리그2는 몸싸움이 많다. 수비도 엄청 거칠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짜증을 엄청 냈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며 웃었다. 이어 "K리그1은 기술적 축구를 한다.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영리하게 플레이하니까 K리그2처럼 거칠게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우리도, 나도 잘 대응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팀 동료들의 도움을 최근 자신이 기록한 3경기 연속골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펠리페는 "나 혼자 좋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 팀이 좋아졌다. 축구는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다.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울산과 경기(5월 30일 1-1 무)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동료들도 상대 수비에 적응을 했고, 그러면서 내게도 좋은 기회가 왔다. 내 골은 팀 동료들 덕분에 넣은 것이다"며 동료들을 추켜세웠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